R&R 30(2022) 157-188 https://doi.org/10.36365/kukirs.2022..30.157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공공선교신학

송영목
(고신대학교, 교수, 신약신학)

Ⅰ. 들어가면서
Ⅱ. HC의 기독론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Ⅲ. HC의 교회론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Ⅳ. HC의 종말론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Ⅴ. HC의 십계명 해설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Ⅵ. 나오면서

[초록]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1563, 이하 HC)는 성경의 진리를 개혁신학과 성경신학의 체계를 따라 문답식으로 탁월하게 풀어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그런데 HC는 오늘날 여전히 사랑받고 활용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은 HC는 물론 다른 신앙고백서들의 현대적 활용 문제와 맞물린다. 그런데 HC를 오늘날 활발히 논의 중인 공공신학과 선교적 교회 혹은 2010년경부터 이 둘을 통합한 공공선교신학(public missional theology)의 관점에서 연구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최근에 HC에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동성이 부족하기에, HC에 따르면 교회가 명시적으로 선교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HC에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선교에 대한 강조가 실제로 결여되었는가를 염두에 둔 채, HC의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십계명 해설에 담긴 공공선교신학적 의미를 살핀다. 이 연구 주제가 합당한 이유는 교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종말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공공성(公共性)과 공동선(公同善)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현대교회가 HC와 같은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에 과한 지침이 되는 논구로서 의의가 있다. 성경을 요약한 HC를 비롯하여 역사적 신앙고백서를 공공선교적 관점으로 읽는 시도는 타당하다. 현대교회가 수백 년 전의 신앙고백서라는 유산을 그저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신학과 신앙의 길동무로 삼아 현대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진력해야 한다.

키워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공선교신학,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개혁신학

논문투고일 2022.07.20. / 심사완료일 2022.08.30. / 게재확정일 2022.09.07.

Ⅰ. 들어가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1563, 이하 HC)는 성경의 진리를 개혁신학과 성경신학의 체계를 따라 문답식으로 탁월하게 풀어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1] 그런데 HC는 오늘날 여전히 사랑받고 현대 상황에 맞게 적실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은 HC는 물론 다른 신앙고백서들의 현대적 활용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2] 이 주제를 성경을 주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학자를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3] 더구나 오늘날 활발히 논의 중인 공공신학과 선교적 교회 혹은 2010년경부터 이 둘을 통합한 공공선교신학(public missional theology)의 관점에서 HC를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4] 그런데 "HC에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동성이 부족하기에, 교회가 명시적으로 선교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교회가 암시적 방식으로 선교해야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판 덜 보르흐트(E. A. J. G. van der Borght)에 의해 최근에 제기되었다.[5] 또한

---

1 J. R. Beeke and E. D. Bristley, "Teach All Nations: The Us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North America and throughout the Non-European World," *WTJ* 78 (2016), 287. 이 논문은 김헌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I-IV』 (서울: 성약, 2009)의 한글 번역본을 주로 참고한다.

2 우병훈은 신앙고백서는 물론, 교부에 나타난 공공신학적 의미를 교의학으로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둔다.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두 현대 이론 분석: 한나 아렌트와 진 엘슈테인의 대표적 연구서에 나타난 『신국론』 해석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5 (2020), 63-142.

3 물론 예외가 있다. HC 제45-52주일의 기도에 관한 해설을 엡 5:21-6:9의 가정 규례와 연결하여 현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에토스를 형성함으로써, 이기적으로 생명을 착취하는 현실을 상호 존중과 돌봄이 있는 가정 중심의 에토스로 개선하려는 방안은 E. Mouton, "The Heidelberg Catechism on Prayer: Relevance of a 16th Century Confession for 21st Century Households?" *Acta Theologica* 34/1 (2014), 182-90을 보라.

4 공공선교신학은 교회당 안팎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보다 공동선을 구현하는 장안을 탐구한다. 이런 통합적 연구가 일반사회과학이나 종교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전제하면서 논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S. Kim, "Mission's Public Engagement: The Conversation of Missiology and Public Theology," *Missiology* 45/1 (2017), 7-24; R. S. Heaney, "Public Theology and Public Missiology," *Anglican Theological Review* 102/2 (2020), 203-212.

5 E. A. J. G. van der Borght,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Church,"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277.

HC에는 교리적 내용은 물론 사회 윤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HC와 별도로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6]

본 연구는 HC에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선교에 대한 강조가 결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염두에 둔 채, HC의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십계명 해설에 담긴 공공선교신학적 의미로 범위를 좁혀 살핀다. 이렇게 몇 가지 신학 주제들로 연구를 제한한 이유는 교회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종말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성(公共性)과 공동선(公同善)의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은 현대교회가 HC와 같은 역사적 정통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하나의 유익한 지침도 제공할 것이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는 물려받은 귀한 유산을 오늘날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끝에 교회가 HC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공선교적 메시지를 찬송가에 담아 찬양으로 되새기도록 도울 것이다.

II. HC의 기독론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HC의 기독론 문답들은 기독론에 정초한 선교적 교훈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담아내는가? 유베르(L. K. Joubert)는 HC가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과 경쟁을 통한 성공주의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7] 첫째,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예. HC 12-18)가 현대인에게 지나치게 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둘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성품 형성을 덜 강조한다. 셋째, 대속의 은혜를 통한 개인적 구원주의를 강화하여

6 유현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효과적인 적용연구," (Th.M. 논문, 총신대학교, 2013), 46.
7 L. K. Joubert, "Salvation according to the Heidelberg Catechism,"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105-112.

공공선교적 강조는 약화된다. 넷째, HC의 '얻다', '유익', 그리고 '성취'와 같은 용어는 오늘날의 맘몬주의와 경쟁주의 및 성공제일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유베르가 위에서 제시한 반(反)선교적 분석은 비평이 필요하다. HC가 작성될 무렵 신성로마제국의 상황은 오늘날처럼 국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절박한 필요가 부족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HC가 어린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의도된 사실은 두 작성자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신학적이고 추상적 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것에 적합한 선행을 제3부 감사의 생활과 선교에서 강조한다(참고. HC 90-91). 또한 '얻다, 유익, 성취'는 인간적인 경쟁과 성공을 조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덕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위로를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이다(참고. HC 28, 36, 43, 45, 49, 51). 그러므로 유베르가 HC를 반선교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HC의 공공선교적 의미를 기독론에서 논구할 때, 먼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HC에 나타난 선교적 의미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다. HC의 기독론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기독론을 해설하는 HC 29-52문에 잘 드러난다. 그런데 총 34개에 달하는 기독론 문답에서 예수님이 교회와 만유를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신다는 내용이 있다면 기독론에 입각한 공공선교적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HC에 예수님께서 온 교회(whole church)를 포섭하신다는 언급이 종종 나타난다(HC 31, 37, 38, 43, 45, 49, 50-52).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유를 포섭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암시는 드물지만, HC 32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공공선교적 메시지는 HC 123문에 분명하다. HC 123은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는데(마 6:10; 참고. 6:33), 주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려면(고전 5:58)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첫째, 복음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둘째, 주 예수님과 복음을 대항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와 악한 모의는 격파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음으로써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선교적 교회라면 사탄

의 권세와 모의(謀議)에 맞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야 한다. 바로 그때 HC 128에서 밝힌 대로, 만유의 창조자와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자신의 교회에 베풀어주신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와 모의는 교회당 바깥에서도 벌어지므로, 선교적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공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마 6:10)을 설명하는 HC 124에도 공공선교적 메시지가 드러난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둘째와 셋째 간구가 유사한 맥락에서 연이어 언급되기에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다. HC 124는 그리스도인이 직분(ampt)과 소명(beruff)을 기꺼이 그리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밝힌다(고전 7:24).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직분은 물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직업 등을 통하여 소명을 구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때 사탄의 악한 모의와 권세의 저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써 성부의 나라와 뜻을 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구현하셨다.[8] 따라서 HC 123-124의 주기도문의 둘째와 셋째 간구는 공공선교적인 기독론으로 종합되며, 그것은 결국 천국 백성의 교회당 안팎의 소명을 구현하고 천국 윤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확장된다.

예수님의 온 교회적 정체성은 부활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HC 17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대한 설명에서 선교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 자신에게 발생한 실제 역사적인 회복사건인 몸의 부활은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죄 사함이라는 칭의와 중생의 은덕을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 몸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소망하도록 만든다.[9]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선물로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의와 중생 그리고 영화를 선취(先取)하는 회복의 복음을 누리고 전파해야 한다.

그런데 HC 49의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들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통한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이 문답은 선교를 위한 지상명령을 담은 마태복음

8 최갑종, 『예수님이 주신 기도』 (서울: 이레서원, 2000), 185.

9 J. P. Labuschagne, "A Hermeneutical Reflection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 Question and Answer 45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die Skriflig* 47/2 (2013), 4-5.

28:18-20을 근거 구절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아하고 흥미롭다.[10] 하지만 마태복음의 결론인 28:18-20은 임마누엘을 언급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아니므로 HC 49의 필수 구절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르시누스의 대교리문답(1562) 제96문은 예수님의 승천으로써 '하늘 문이 우리와 우리 형제와 구성원들'을 위해 열려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하늘 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강조점과 더불어 언급된 '구성원들'은 장차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회원이 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HC가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에 대해 해설하는 방식은 우르시누스의 대교리문답의 관련 설명보다 선교적 의미를 다소 약하게 담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HC에서 공공선교적 교훈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천상 통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은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HC는 그리스도의 이런 통치를 29-52문(아들 하나님)은 물론 53-64문(성령 하나님) 그리고 65-85문(성례)에서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효한 사역(HC 31)은 성자와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며 삼직을 수행하도록 만든다(HC 32).[12] 여기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책무는 특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하에서(HC 26)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받아 약자를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선교사역을 행하고, 주님의 '제사장적 권능'을 받아 성부의 영광을 위해 예배와 기도와 성례전적 삶을 통해 기쁨과 복을 누려야 한다(HC 32).[13]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들어 자신과 함께, 안에, 그리고 곁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경험함으로

---

10 참고. Boer, "Missions and the Creeds II," 13.

11 이와 유사한 경향은 HC 35가 성령으로 가능했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 때, 마 1장의 족보에 나타난 이방 여성들을 포함하지 않는데도 나타난다. HC의 독일어 원본은 증거 구절로 이방 여성들과 무관한 마 1:18, 그리고 20절을 언급한다. 만약 HC의 두 작성자가 마 1장의 이방 여인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방인 전도를 통한 보편교회에 대한 강조를 현대 독자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에 해당한다.

12 M. Welker, "What Profit is the Reign of Christ to Us?: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Its Potential for the Future."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287.

13 Welker, "What Profit is the Reign of Christ to Us?" 289-90.

써, 심판받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야 한다(HC 52).[14]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성령론적 기독론은 예수님의 잉태(HC 35), 사역(HC 31), 승천(HC 47, 49), 은사 주심(HC 51), 공교회(HC 54), 그리고 통치에 계속 반복된다(HC 123).[15] 그리고 성령은 성자와 교회를 묶는 띠이다(HC 53). 따라서 성령론적 기독론은 성령론적 교회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HC는 보편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은사를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적 통치를 선교로 구현해야 함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Ⅲ. HC의 교회론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HC는 오늘날 적지 않은 지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하려고 애쓰는 선교적 교회 개념을 다루는가? 그리고 HC는 선교적 교회,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당 바깥에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는가? 이 두 질문에 HC는 긍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타인도 그런 은혜를 입도록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언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보편교회로 그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HC 4, 9, 21, 32, 34주일).[16]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 특히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준수하는 선행으로써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HC 32주일). 이처럼 선교적 교회론과 윤리론은 동전의 양면이며, 이 둘은 원인-토대와 결과-열매와 같다.

그런데 HC는 21주일에서 '믿다'(credo) 그리고 48주일 등에서 '기도하

14 Welker, "What Profit is the Reign of Christ to Us?" 291.

15 D. R. Hyde, "The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7 (2006), 215-19.

16 이 글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사회복음과 무관하며, 구원을 주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방점을 둔 개혁주의 용어이다. J. J. F. Krüger, "The Reformed Confessions: Embarrassment or Blessing to a Missionary Church?" *In die Skriflig* 41/4 (2007), 555-60.

다'(ora)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선교를 위해 '힘쓰다'(labora)는 동사는 사용하지 않기에 HC가 선교를 적극적으로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7] 용어를 통해 사상이 전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상은 용어 자체에 제한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HC 21주일은 공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기에, 선교는 공교회의 본분과 같다. 그리고 HC 48주일은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를 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고전 15:28). 또한 공교회가 선교의 책무를 수행하려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과 말씀과 선행으로 충만해야 한다(HC 54).[18] HC가 작성된 무렵 종교개혁 전통에 따르면, 잠에서 깨었을 때, 배우러 갈 때, 식사 전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웃의 유익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19] 좁게는 목사가 기도하며 행하는 설교, 넓게는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언은 천국 열쇠들을 활용하는 선교 행위이며,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이다(HC 83, 123).[20] 따라서 HC 123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를 하나님의 선교로 설명하지만, 교회의 선교 임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위의 성급한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21]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조점은 HC 제1판이 교회의 선교, 설교, 그리고 세례를 강조하는 마태복음 28장을 여러 문답에서 언급했다는 사실(HC 22, 25, 31, 47, 48, 50, 53, 65, 71),[22] 그리고 우르시누스의 HC 54 해설에도 교회의 세 표지(교리 고백, 성례 시행, 교리에 대한 복종 고백)와 더불어 마태복음 28:19를 언급하는 데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23]

HC 64와 관련하여 올레비아누스는 *A Firm Foundation*에서(1567; 특히 제170문답),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로

---

17 Boer, "Missions and the Creeds II," 13.
18 Boer, "Missions and the Creeds II," 13.
19 참고. 최준혁, "마르틴 부처의 요리문답 연구," (Ph.D. 논문, 안양대학교, 2017), 243-44.
20 F. H. Klooster, "Missions: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7/2 (1972), 200-201.
21 Contra Boer, "Missions and the Creeds II," 13.
22 Klooster, "Missions," 202.
23 Z. Ursinus, *The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 475.

부터 복음을 배워 선지자와 교사의 직무를 세상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는 그리스도인이 선지자로 활동하려면 교회당 안팎에서 참되고 공적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막 8:36; 눅 9:26), 기회와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웃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라고 힘주어 말함으로써 선교를 강조한다.[24] 이것은 올레비우누스가 교회를 만인 선지자로 간주하여 공공선교적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령님은 교회가 선교공동체로서 만인 선지자로 활동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를 위해, 성령은 믿음을 주시고(HC 21) 기도와 성화의 주체가 되시므로(HC 24, 32, 115-16),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의 선행과 감사의 근거도 되신다(HC 86-129; 특히 HC 115-16).[25] 성령께서 교회를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님의 은혜로운 사역과 덕에 참여하며 교제하도록 만드시기에, 교회는 선행이라는 열매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HC 64, 86).[26] 성령으로 교회가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리고 성화와 감사는 성령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반응이기도 하다.[27] HC 5는 교회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반선교적 본성이 있다고 밝히는데, 이를 간파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그런 죄를 죽이도록 역사하신다(HC 88).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HC 86; 참고. 고전 10:31; 빌 1:11). 이를 위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엡 5:1-2; 살전 1:3; 벧전 2:21-24; 벧후 1:5-11).[28] 실제로 우르시누스는 전도를 위하여 그리

---

24 이 단락은 De Boer, "Christology and Christianity," 5-6에서 요약 인용.

25 Hyde, "The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214, 223-26; 이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 그 윤리적 함의," 「한국개혁신학」 40 (2013), 285-86.

26 D. J. Smit, "Vervreemding en Gawe: Sleutelmotiewe in die Heidelbergse Kategismus?" *NGTT* 54/1-2 (2013), 14-15.

27 Boer, "Missions and the Creeds II," 13.

28 우르시누스의 소교리문답 79문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한 바라고 짧게 규정한다. J. Vanderkemp, *Heidelberg Catechism*, Volume 2, trans. J. M. Harlingen (Grand Rapids: RHB, 1997), 168-69.

스도인이 수행해야 하는 선한 일의 근거 구절을 많이 제시한다(눅 22:32; 롬 6; 8:1-16; 14:19; 벧전 3:1).[29]

HC 54-55에 따르면, 교회는 성자의 의의 전가와 성자와의 교제라는 '기독론적 도장'(Christological stamp)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E. A. J. G. van der Borght의 용어), 죄인을 교회로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30] 성도가 그런 은사를 남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선교적 의무 수행'이 된다(참고. HC 30문의 웰빙 개념). 그러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선교적 교회에게 '기독론적 도장'이라기보다 좀 더 적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적 도장'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대속, 그리고 성령의 보존과 은사 주심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교회의 선교 사역을 형성하고 주도하기 때문이다(참고. 엡 1:3-14).

우르시누스는 HC 91의 '선행'에 대한 해설에서,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관습이 아니라, (1)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3)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만 행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HC와 우르시누스는 선행을 (1) 성경의 '규범적' 측면, (2)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라는 '상황적' 측면, 그리고 (3) 복음을 성도 자신에 적용시킨 '실존적' 측면으로 규정한다.[31] 그런데 사랑과 순종에서 나오는 선행이라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이고 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적 삶도 형성한다.[32]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복종 그리고 선행을 생산해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사람의 대사회적 성향,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조차 바꾼다.[33] 이런 선교적 선행(missional good works)과 관련하여 HC의 몇몇 문답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역을 고백하는

---

29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740.

30 Van der Borght,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Church," 264-65.

31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756-60; 이경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 나타난 믿음과 선행," 「한국개혁신학」 40 (2013), 12.

32 M. D. Hugen, "The Shaping Influenc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on the Pastoral Care of the Church," *Reformed Review* 55/2 (2001), 133.

33 Hugen, "The Shaping Influenc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on the Pastoral Care of the Church," 135.

HC 27은 성도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돌보는 윤리적 행위로써 선교하라고 가르친다.[34] 그리고 HC 110의 제8계명 해설은 도둑질을 금하는 것을 넘어, 거짓 저울, 위조 화폐, 탐욕과 하나님의 선물을 목적 없이 낭비함, 그리고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를 언급하며 금한다. 그리고 HC 110은 인간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감사와 경건이 왜곡됨을 경고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HC 111은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 남을 돕도록 성실히 일하라는 적극적 권면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HC 1에서 밝힌 생사간의 위로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HC의 십계명 해설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경건을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요약하면, HC는 이웃을 섬기려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통전적이며 경건한 선교적 삶을 가르친다.[35]

이런 맥락을 잘 파악한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는 제8계명을 설명하는 HC 42주일을 설교하면서, 남에게 기회를 선용하여 선을 베풀라는 잠언 3:27과 은사를 활용하여 청지기로 살라는 베드로전서 4:10을 언급하면서, 수전노와 낭비하는 자를 거부하고 남을 적극적으로 섬길 것을 제안했다.[36] HC의 중요한 자료가 된 폴란드의 개혁자 라스코(Jan a Lasco, d. 1560)의 교리문답서와 우르시누스의 소교리문답서의 주제는 '위로'였는데, 이 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세상을 위로하여 공공선을 세워야 한다.[3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르시누스가 주도한 팔츠 교회질서(Palatinate Church Order, 1563)에 따르면, 팔츠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 시(종종 설교 이후)에 범죄와 부패 가운데 출생한 자신들의 가난과 비참을 영원토록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 아뢰었으며, 기도 끝에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이웃의

---

34 F. de Lange, "The Heidelberg Catechism: Elements for a Theology of Care,"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158.

35 Hugen, "The Shaping Influenc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on the Pastoral Care of the Church," 137.

36 A. Kuyper,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Lord's Day 42(1895)," trans. A. Gootjes,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16/2 (2013), 741-49.

37 B. Thompson, "The Palatinate Church Order of 1563," *Church History* 23/4 (1954), 346.

교화(edification)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38]

HC는 전통적인 전도 곧 복음을 증언하여 불신자를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교회는 중보자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대속과 화해 사역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써 수용하는 공동체이다(HC 21; 37; 40; 53; 64). 하나님은 모든 인종으로부터 사람을 불러 교회로 모으시므로(HC 54), 교회도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서 화해를 위한 사랑과 선교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HC 55; 참고. HC의 영향을 받은 남아공 개혁교회의 벨하신앙고백 제2항의 예수님의 화해 사역을 증명하는 교회의 일치; 고후 5:19).[39]

교회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를 여러 문답에서 강조하는 HC는 16세기 말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 불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7세기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말레이어, 자바어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다.[40]

IV. HC의 종말론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HC의 종말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며 윤리적으로 생활하는 추동력이자 동인(動因)과 같다. HC 52는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 택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장차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고 설명한다. 이 사실은 죄와 비참을 치유하는데 헌신해야 할 교회의 종말론적 윤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HC 52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조차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심판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사실은 감사의 열매와 같은 선교적 선행에 힘쓴 성도에게 매우 적실한 미래 종말론적 위로가 아닐 수 없다.

---

38 Z. Ursinus et als.. "Palatinate Church Order 1563," in *Reformation Worship: Liturgi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ed. J. Gibson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18), 610-61.

39 D. F. Ottati, "Learning Theological Ethics through the Heidelberg Catechism,"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145-47.

40 Klooster, "Missions," 207-208.

종말의 은사이신 성령은 성도를 중생시키고 믿음을 주셔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인 왕-제사장-선지자인 교회가 선교적 윤리를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신다(HC 8, 32, 49, 51, 65, 88, 91).[41] HC의 십계명 문답에 설명된 바처럼, 성령은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HC 115-116).[42]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남의 비참을 간파하고(HC 3)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남의 유익과 복을 위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HC 4, 55).[43] 이 사실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성령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 맺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교적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갈 5:14-18, 21; 요일 4:9).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을 즐거이 준행하도록 도우신다(요일 5:2-3).[44]

HC 117은 주기도문 해설의 서론인데, 증거 구절로서 로마서 8:26의 탄식하면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언급한다. 성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부분(HC 116)인 기도를 하나님을 경외함, 겸손, 그리고 소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로 빚어지는 사람만 선교적 교회로 살 수 있다.[45] 이처럼 기도의 영이신 성령은 선교적 교회를 도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지만 종종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선교적 교회가 HC의 세 주제인 '비참, 구원, 그리고

---

41 D. R. Hyde, "The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7 (2006), 219; 이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 그 윤리적 함의," 285-98.

42 Hyde, "The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225; J. van Vliet, "Experiencing Our Only Comfort: A Post-Reformation Refocu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Puritan Reformed Journal* 6/2 (2014), 163.

43 D. Mashau, "John Calvin's Theology of the Charismata: Its Influence on the Reformed Confess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hurch's Mission," *Missionalia* 36/1 (2008), 93-94.

44 G. Meilaender, "The Decalogue as the Law of Christ," *Pro Ecclesia* 27/3 (2018), 343.

45 A. Verhey, "Prayer and the Moral Life according to the Heidelberg Catechism," *Reformed Review* 48/1 (1994), 32-33.

감사'를 다시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사랑 실천에 실패한 자기 백성을 비참에서 다시 건져주실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모든 원수를 자신의 발아래에 복종시키는 일을 하시므로, 교회는 낙심하고 비관에 바질 것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종말론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참고. HC 123문답의 증거구절인 고전 15:28).[46]

V. HC의 십계명 해설에 나타난 공공선교신학적 함의

많은 신앙고백서의 필수적인 내용은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다. 이 셋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도하면서 얻는 소망에 각각 상응한다(고전 13:13).[47] 이 가운데 십계명은 신약 성도가 감사를 선교적으로 실천하는 치침과 같기에 상세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HC 92-115에 나타난 십계명 해설의 요지(要旨)는 비참에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히 지켜야 할 윤리이다. 이미 HC 4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 나, 그리고 언약공동체 (그리고 피조물)의 삼각관계 속에서 사랑 실천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48]

HC의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HC 작성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제유법(synecdoche)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HC가 십계명을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몇 가지 방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49] 따라서 십계명의 각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구원론에 입각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적극적이고 풍성한 의무론적 윤리(deontology)를 지지한다(참고. 골 3:10-14). 십계명 해설의 출발점과 목표는 사랑인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수평적으로 사람을

---

46 G. I. Williamson, *The Heidelberg Catechism: A Study Guide*, 이길호 역,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5), 284.

47 유해무·김헌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성약, 2006), 206.

48 J. M. Vorster, "'N Etiek van Liefde: Die Etiese Perspektiewe van die Heidelbergse Kategismus," *In die Skriflig* 47/2 (2013), 2-3.

49 J. Douma,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 N. Kloosterman (Phillipsburg: P&R, 1996), 12.

사랑하는 것에 우선한다.[50]

제1계명은 모든 우상숭배와 마술, 미신적인 주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대한 기도를 금한다(HC 94). 그런데 HC 94문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마치지 않고, 긍정적인 명령 즉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르게 알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부정적 명령에서 긍정적 명령으로의 전환은 제6계명과 제9계명 그리고 제10계명 해설에도 나타난다(HC 105-107, 112-113). HC의 포괄적인 해설 방식을 염두에 두고, 폴스트(J. M. Vorster)는 제1계명이 천연자원이나 약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사람을 파괴하고 비인간화시키는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숭배 등도 포괄적으로 금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사회 윤리를 찾는 방식으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한다.[51] 제1계명을 비롯하여 십계명은 2인칭 단수 '너'에게 명령하므로, 개인의 책임성이 무너지면 사회 윤리도 실패로 돌아감을 알 수 있다.[52] 다시 말해, 십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개별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헌장으로 삼아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므로(참고. 요일 4:16),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는 언행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거스르므로 제3계명을 어기게 된다(HC 99-100).[53]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신자, 불신자)을 사랑하기보다 모욕한다면 제3계명을 범하게 된다(약 3:9).[54]

HC 103은 제4계명을 해설하면서 먼저 공 예배를 강조한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고전 16:2). HC 103에서 기독교적 자비를 시행하라는 증거 구절인 고린도전서 16:2는 고린도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를 돕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4계명은 교회의 대 사회적 구제 활동을 배제하지 않지만, 연보를 통하여 지역 교회 간의 연합이라는 공교회성을

50 Douma, *The Ten Commandments*, 12.
51 Vorster, "'N Etiek van Liefde," 4.
52 Douma, *The Ten Commandments*, 10.
53 Vorster, "'N Etiek van Liefde," 5.
54 Vorster, "'N Etiek van Liefde," 5.

강조한다. 그리고 제4계명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주중의 일상생활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사회-윤리-선교적 함의를 표현한다.[55] 그런데 제1-4계명은 종교적이고 수직적인 계명이지만, 제5-10계명은 수평적이고 사회-윤리적인가? 제5-10계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들이므로, 이웃을 향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속적 영역이란 아예 없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56]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당 안과 주일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교회당 밖과 주중이라는 사회-윤리적 의미를 날카롭게 구분할 수 없다.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병자와 약자와 갇힌 자를 찾아 위로하고 섬기는데 헌신했음을 증언한다.[57]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규정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58]

제5계명은 제유법을 통해 부모 즉 모든 권세자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일 것을 강조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롬 13:1),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의 안정과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59]

제6계명 해설도 제유법을 통해 사랑의 윤리를 설명한다(HC 105-107). 따라서 제6계명이 금하는 살인은 모든 폭력적 행위와 자살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6계명을 설명하는 HC 107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밝힌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선행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격투기나 위험한 레저 활동은 제6계명을 범할 수 있다.[60] HC 107은 이웃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확대하면서, 마태복

---

55 Vorster, "'N Etiek van Liefde," 5.
56 P. Enns, *Exodus* (Grand Rapids: Zondervan, 2000), 419-20.
57 E. P.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 신호섭 역,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8), 99.
58 Clowney,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99.
59 Vorster, "'N Etiek van Liefde," 6.

음 5:44-45와 로마서 12:20-21을 근거 구절들로 적절히 제시한다.

HC 108은 제7계명을 제유법을 통해 설명하는데, 성령의 전인 성도가 부부 관계는 물론 삶의 언행 심사에 바르고 순결하게 살 것을 촉구한다(살전 4:3-5; 히 13:4). 불신자도 부부 관계를 헤치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간주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초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반사회적 범죄로 이해한다. 그러나 불신자와 달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해하기에, 간통은 가정은 물론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약신학에 따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된다.[61] 그리스도인이 제7계명을 준수할 때 건강한 가정을 보존하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사회의 구성원인 불신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

종말의 은사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와 정의의 영'으로서 일하신다.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덕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라는 '진실한 자세'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덕을 기리며 하나님에게 순종과 선행으로써 감사를 드리는 '정의의 실천'을 포함한다.[62] 이와 관련하여, 제8계명이 중요한데 성령님은 성도에게 경제 정의를 구현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다. 제8계명은 탐욕에서 나오는 고리대금, 사기, 부패, 그리고 도박 등과 같은 도둑질을 금하며, 청지기로서 정당한 노동과 소득을 긍정하고, 빈자를 적극적으로 돌볼 것도 명한다(HC 110-111).[63] 도둑질은 남의 경제적 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사회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복을 파괴한다는 언약 신학적 의미도 있다.[64] 그러므로 성도는 도둑질을 멈춤으로써 새 언약의 동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언약 밖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8계명을 지키려면, 빌린 돈을 성실하게 갚지 않음, 합법성을 가장한 부정과 위조 행위, 중독에 빠트리는 도박 산업, 청탁성 및 선심성 뇌물, 그리고 고리대금과 같이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행위를 거부해야 한다.[65]

---

60 P. J. de Bruyn, *The Ten Commandments* (Pretoria: Varia Publishers, 1993), 147.
61 C. J. H. Wright, "The Israelite Household and the Decalogue: The Soci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Some Commandments," *Tyndale Bulletin* 30 (1979), 123-24.
62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737.
63 Vorster, "'N Etiek van Liefde," 7.
64 Wright, "The Israelite Household and the Decalogue," 112.

그리고 남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부정을 행하는 것은 사회-윤리적 함의를 강하게 담아내는 제10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HC 113).[66] '천국의 환전상'(오리겐의 용어)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제8계명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면 열심히 정당하게 일하여 이웃의 빈자를 긍휼히 여기며 구제해야 한다(참고. 마틴 부써의 교리문답[1537] 중 제8계명 해설).[67] 다우마(J. Douma)는 HC보다 더 강한 공공적 어조로써 제8계명을 사회 부정의(social injustice)와 직결하여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우마는 약자의 토지와 주택과 재산을 강탈한 권력자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성경 본문(사 5:8; 렘 22:13-17; 암 8:4-6; 합 2:9-12; 마 23:14; 약 2:7; 5:4) 그리고 안식년제도와 추수 때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던 곡식과 빈자를 향한 구제를 자신의 논거를 삼는다(출 23:11; 레 19:10; 신 15:4-5, 8).[68]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은 HC 110은 십계명을 준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을 능동적으로 준수하려면,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무익하게 낭비하지 않고 선교적 자세로 적극 활용하려는 결단이 중요하다(벧전 4:10).[69]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공공선교적으로 제8계명을 실천할 때, 관련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여 개혁을 시도해야 하지만, 먼저 그 계명의 정신을 이웃과의 삶에서 형제애로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것도 중요하다.[70]

HC 112의 제9계명의 공공선교적 메시지는 거짓 증언, 남의 말을 왜곡함, 그리고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하거나 정죄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금하므로,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한 사회 윤리를 가르친다. HC 123은 그리스도인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맞서야 함을 강조한다(요 8:44). 그리고 새 사람을 옷

---

65 De Bruyn, *The Ten Commandments*, 234.

66 Vorster, "'N Etiek van Liefde," 8. 참고로 제8계명을 기득권 계층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착취한 사회적 행태를 넘어, 양육강식 방식으로 따른 제국주의의 횡포로까지 확대 적용한 경우는 김홍전, 『십계명 강해』 (서울: 성약, 1996), 200-205를 보라.

67 참고. 최준혁, "마르틴 부쳐의 요리문답 연구," 166-67.

68 Douma, *The Ten Commandments*, 290-91.

69 HC 112문의 은사 낭비를 금하는 증거본문은 잠 5:16인데, 그 구절은 부부의 성적 정절을 가르치므로 적절한 본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70 김홍전, 『십계명 강해』, 209-210.

입은 바울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하나님에게 호소했듯이(고후 11:31),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의 습성인 거짓말을 경계해야 한다(롬 13:14; 골 3:9).[71]

HC 113이 다루는 제10계명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의 곧 회복된 관계를 선물로 받았다면, 이웃을 향하여 약탈과 부정을 일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윤리적 실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시 82:3; 렘 22:17; 암 5:7-13).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사회-정치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적 역할의 수행 임무가 주어진다.[72] 이를 위해, 한 예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심화시키는 정당이나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체계를 지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73] 신약 교회에게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법'이므로(갈 6:2), 제10계명에서 언급하는 이웃의 정체는 HC에 나타난 기독론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신가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에 심지어 원수를 포함하셨다(마 5:43-48). 이 사실은 제6계명을 설명하는 HC 107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사회적 영역과 윤리적 책무는 사랑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교회당 바깥으로 확장된다.[74]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인 햇빛과 비를 불신자들에게도 내려주시듯이(마 5:45), 성도는 불신자들과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소유까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HC의 십계명 해설을 통해, 그 누구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덕을 입지 않거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선행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75] 환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덕을 기억해야만,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십계명을 준행할 수 있다.[76] 이 사실은 십계명을

---

71 L. Novakovic, "The Decalogue in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5/4 (2008), 385.
72 Vorster, "'N Etiek van Liefde," 8.
73 Vorster, "'N Etiek van Liefde," 9.
74 Novakovic, "The Decalogue in the New Testament," 386.
75 Enns, *Exodus*, 432.
76 Douma, *The Ten Commandments*, 353.

기독교 교리문답 안에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풀어낸 어거스틴이 신랑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 교회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자 아름다운 찬송을 연주하는 열 줄 비파와 같다고 십계명을 소개한 사실에도 잘 부합한다(시 144:9).[77] 더불어 HC가 십계명을 해설하는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각 계명을 준수할 때,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한 루터의 입장과도 조화가 된다.[78]

그리스도인이 교회당 안팎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십계명을 즐거이 지킨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물어올 것이다(벧전 3:15). 그런데 십계명은 출애굽 한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적 삶의 지침서라기보다, 전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여 생사 간에 위로를 받아 사는 보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선교를 위해 협력한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적절히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후 1:4).

HC는 "이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위로를 줍니까?"라고 여러 차례 묻는다(HC 36, 49, 52, 56, 57, 58 등). 결국 HC는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공적 신앙인을 양육하려는데 목적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이런 선행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결과이다(HC 86). 그런데 HC가 작성될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 당시 천주교의 주장과 유사하게, 지난 세기 중하순 경부터 본격화한 바울의 새 관점은 시초 칭의가 최종 칭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면서 선행을 매우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종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은 HC의 주장과 상치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선행을 장려하는 해결책으로 역부

---

77 참고. C. E. Braaten and C. R. Seitz ed., *I am the Lord Your God: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Ten Commandments* (Grand Rapids: Eerdmans, 2005), 250-51.

78 루터의 대교리문답서는 선교가 아니라 사죄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공동체 내부를 지향하며, 선교적 교회의 복음을 현시하는 행위보다는 성도 자신을 향한 복음과 믿음을 강조한다. 참고. Braaten and Seitz ed., *I am the Lord Your God*, 251-52; K. Schurb, "Missional?: The Church in Luther's Large Catechism," *Logia* 18/1 (2009), 16, 21.

족이며,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계속 상기시키고 HC가 강조하는 구원의 기쁨과 위로를 앗아갈 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HC가 비판의 주요 대상으로 염두에 두었던 천주교는 오늘날 『교회헌법』 제795조의 참된 교육에서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빠트리지 않는다.

> 인간의 최종 목적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온전한 인격 양성(전인 교육)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체적, 윤리적 및 지성적 자질을 조화 있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책임감과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터득하며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79]

이 조항은 교회당 밖과 주중에 선교적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동선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개신교회를 분발하도록 자극한다.

HC는 인간 자신 그리고 사회가 초래하는 비참에 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특히 십계명 해설은 개별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담아내어 교훈한다. 이 이유로 HC는 정치, 법률, 도덕, 그리고 종교적 한계와 비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개혁과 저항을 위한 기독교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에 저항한 바르멘 선언문(1934)과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벨하신앙고백서(1986)는 HC의 중심 개념과 진술을 따랐다고 평가된다.[80]

Ⅵ. 나오면서

HC의 공공선교적 메시지는 첫째로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서 성부의 구원과 선교를 성취하신 온 교회적이며 만유적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

7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헌법』 (https://cbck.or.kr/Documents/Canon, 2021년 9월 6일 접속). 참고로 천주교의 일반 신자 중 다수는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지하고 공동선을 적극 실천할 것에 동의했다. 김선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천주교회의 대응과 변화," 「종교연구」 81/2 (2021), 34-50.

80 Welker, "What Profit is the Reign of Christ to Us?" 283.

강조하는 기독론에 나타난다. 그리고 둘째로 HC의 공공선교적 교훈은 생사 간에 유일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삼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 예수님의 원수를 재림 때까지 자신의 대적으로 간주하여 싸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적 소명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결국 최후 심판대에 기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종말론 해설에서도 공공선교적 강조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HC에서 무엇보다 공공선교적 교훈은 십계명 해설에 가장 선명히 나타난다. 그것은 새 언약 백성인 공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과 돌봄이라는 선행과 의무를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선교적 윤리이다.

HC는 하나님의 선교에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선교적 공교회를 큰 비중을 두고 강조하기에, 한 개인이나 지교회에 국한하지 않고 공교회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사회 윤리적 교훈으로 확대하여 여러 문답에서 설명한다. 물론 HC에는 오늘날 기독교 윤리학자들이나 공공선교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공공선교적 해석과 적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HC가 약 460년 전의 상황 속에서 결코 신앙의 사사화나 내면화 그리고 개교회 중심주의를 조장하지 않았음에 긍정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HC가 작성될 당시, 생사 간에 완전한 위로를 요청했던 상황은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과 잦은 전쟁,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갈등, 그리고 개신교 안의 분열 등이었다. 그런 곤경들은 오늘날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사람과 만물의 피곤함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HC의 배경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 사이의 유비를 적절히 고려한다면, HC의 원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현대에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생사 간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생을 가난과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교회당 안팎의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한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도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위로를 갈망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으려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불신자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위로를 기대하

지 않는다. 그런 차제에 HC가 제시하는 따뜻한 공공선교적 메시지는 한국교회가 크게 상실해버린 공교회성과 대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실제로 HC가 전 세계 교회에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유는 성경에 충실한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한 목회적 돌봄 속에 풀어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탁월한 교리문답서가 현대교회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런 차제에 HC를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실한 내용과 적용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는 적극적 시도가 요청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세상을 천국으로 변혁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그랜드 내러티브'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요약한 HC를 비롯하여 역사적 신앙고백서를 공공선교적 관점으로 읽는 시도는 타당하다. 현대교회가 수백 년 전의 신앙고백서라는 유산을 그저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신학과 신앙의 길동무로 삼아 현대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진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모두에서 신앙고백서를 성경 주해를 통해 탐구하여 현대교회가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HC의 성경 증거 구절의 적절성 여부와 성경 주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적 분석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기에, 추후의 별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교회는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연역적인 질문과 대답이라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귀납적 학습법과 찬송가에 담아 전수하려고 노력해 왔다.[81] 마찬가지로 HC의 삼위 하나님 중심의 공공선교적 의미를 가사와 선율에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현대교회는 '오래된 새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계속 향유하게 된다. 앞에서 살핀 HC의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십계명 해설에 나타난 공공선교적 의미를 각각 한 절씩 총 4절에 걸쳐 가사에 담되,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에 익숙하면서도 공 예배에 사용하기 적합한 선율로 표현한다면 아래 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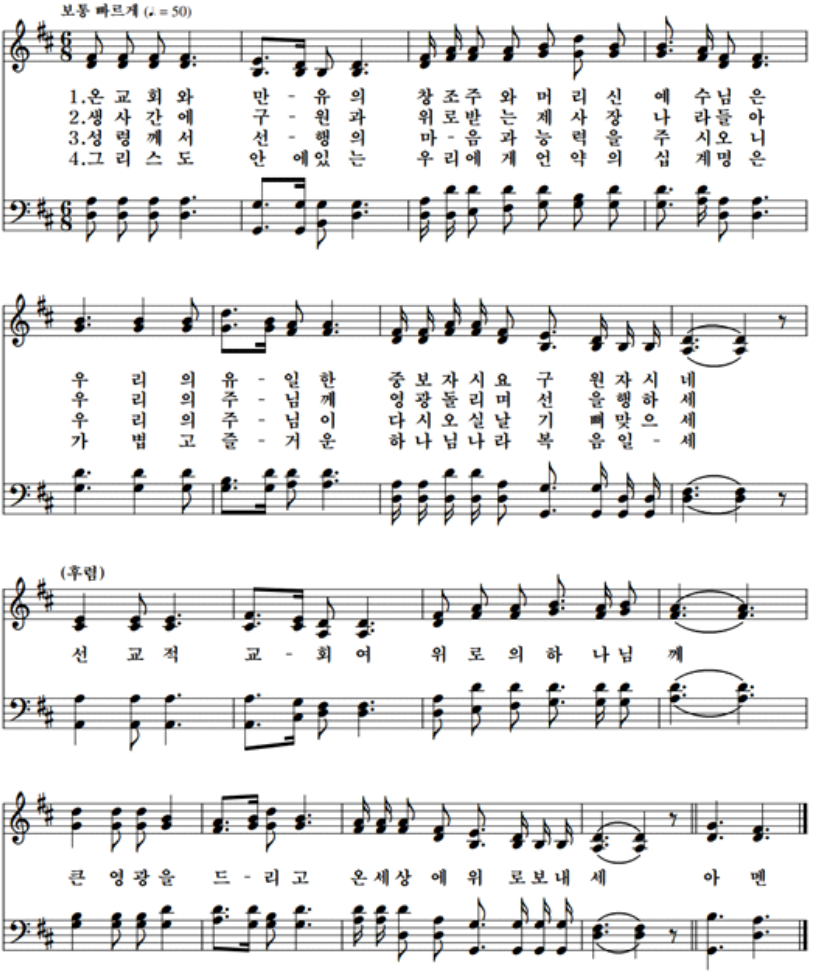
81 부정적으로 이단 아리우스는 자신의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 아이들의 입을 통해 확산했으며, 긍정적으로 오늘날도 프랑스 개혁교회는 다수의 교리문답 찬송가를 통해 신앙고백을 효과적으로 전수한다. 참고. 유현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효과적인 적용연구," 47; R. Sherman, "The Catechetical Function of Reformed Hymnod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5/1 (2002), 79-99.

같다.[82]

8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찬송가]의 곡에 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이 찬송가는 한국풍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우리 민요에 흔히 사용되는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였다. 6/8박자, 5음 음계(도레미솔라), 붓점 리듬 등. 가사의 의미를 음악으로 최대한 표현하고자 음역대와 음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였다. 첫째 줄(프레이즈)에서 가사 '창조주와 머리신 예수님은'은 중요하므로 앞의 가사보다 다소 높은 음역대로 되어있다. 둘째 줄(프레이즈)에서도 중요한 가사 '유일한' 또한 높은 음역을 나타낸다. 셋째 줄(프레이즈)에서는 '위로의 하나님께', 그리고 넷째 줄(프레이즈)에서는 '큰 영광을 드리고' 가사가 높은 음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다. 넷째 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사 '드리고'의 음은 상향진행을 하고 있다. 반면에, 가사 '온세상에 위로를 보내세'는 하향진행을 한다. 이 교리 찬송가는 한국풍의 선율이므로 음을 튕겨서 가볍게 찬송한다면 우리 고유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작곡과 해설은 본 연구자가 아니라 부산삼일교회 오르가니스트 정미경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찬송가

정미경



[참고문헌]

Beeke, J. R. and Bristley, E. D. "Teach All Nations: The Us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North America and throughout the Non-European World." *WTJ* 78 (2016), 287-97.

Boer, H. R. "Missions and the Creeds II: The Heidelberg Catechism." *Reformed Journal* 3/1 (1953), 12-13.

Braaten, C. E. and Seitz, C. R. ed. *I am the Lord Your God: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Ten Commandments*. Grand Rapids: Eerdmans, 2005.

Brown, M. G. "The Covenantal Founda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Puritan Reformed Journal* 7/1 (2015), 88-102.

Clowney, E. P.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 신호섭 역.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8.

Coetzee, C. F. C. "'N Vergelyking van Calvyn se 1545-Kategismus en die Heidelbergse Kategismus oor die Onse Vadergebed." *Koers* 74/4 (2009), 713-29.

Douma, J.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 by N. Kloosterman. Phillipsburg: P&R, 1996.

De Bruyn, P. J. *The Ten Commandments*. Pretoria: Varia Publishers, 1993.

De Lange, F. "The Heidelberg Catechism: Elements for a Theology of Care."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156-73.

Enns, P. *Exodus.* Grand Rapids: Zondervan, 2000.

Heaney, R. S. "Public Theology and Public Missiology." *Anglican Theological Review* 102/2 (2020), 201-212.

Hugen, M. D. "The Shaping Influenc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on the Pastoral Care of the Church." *Reformed Review* 55/2 (2001), 133-38.

Hyde, D. R. "The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7 (2006), 211-37.

Joubert, L. K. "Salvation according to the Heidelberg Catechism."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99-114.

Kim, S. "Mission's Public Engagement: The Conversation of Missiology and Public Theology." *Missiology* 45/1 (2017), 7-24.

Klooster, F. H. "Missions: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7/2 (1972), 181-208.

Krüger, J. J. F. "The Reformed Confessions: Embarrassment or Blessing to a Missionary Church?" *In die Skriflig* 41/4 (2007), 549-70.

Kuyper, A.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Lord's Day 42(1895)." Trans. by A. Gootjes.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16/2 (2013), 713-57.

Labuschagne, J. P. "A Hermeneutical Reflection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 Question and Answer 45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die Skriflig* 47/2 (2013), 1-10.

Mashau, D. "John Calvin's Theology of the Charismata: Its Influence on the Reformed Confess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hurch's Mission." *Missionalia* 36/1 (2008), 86-97.

Meilaender, G. "The Decalogue as the Law of Christ." *Pro Ecclesia* 27/3 (2018), 338-49.

Mouton, E. "The Heidelberg Catechism on Prayer: Relevance of a 16th Century Confession for 21st Century Households?" *Acta Theologica* 34/1 (2014), 174-93.

Novakovic, L. "The Decalogue in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5/4 (2008), 373-86.

Ottati, D. F. "Learning Theological Ethics through the Heidelberg Catechism." *Acta Theologica* 20 (2014), 139-55.

Schurb, K. "Missional?: The Church in Luther's Large Catechism." *Logia* 18/1 (2009), 15-21.

Sherman, R. "The Catechetical Function of Reformed Hymnod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5/1 (2002), 79-99.

Smit, D. J. "Vervreemding en Gawe: Sleutelmotiewe in die Heidelbergse Kategismus?" *NGTT* 54/1-2 (2013), 1-16.

Stob, H. "The Heidelberg Catechism in Moral Perspective." *Reformed Journal* 13/8 (1963), 6-9.

Ursinus, Z. *The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1562).

Ursinus, Z. et als. "Palatinate Church Order 1563." In *Reformation Worship: Liturgi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Edited by J. Gibson.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18, 602-642.

Van der Borght, E. A. J. G.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Church."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261-79.

Vanderkemp, J. *Heidelberg Catechism.* Volume 2. Trans. by J. M. Harlingen. Grand Rapids: RHB, 1997.

Van Vlastuin, W. "The Joy of the Law: A Revisitation of the Usus Normativu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9 (2015), 166-81.

Van Vliet, J. "Experiencing Our Only Comfort: A Post-Reformation Refocu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Puritan Reformed Journal* 6/2 (2014), 149-70.

Verhey, A. "Prayer and the Moral Life according to the Heidelberg Catechism." *Reformed Review* 48/1 (1994), 26-41.

Vorster, J. M. "'N Etiek van Liefde: Die Etiese Perspektiewe van die Heidelbergse Kategismus." *In die Skriflig* 47/2 (2013), 1-9.

Welker, M. "What Profit is the Reign of Christ to Us?: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Its Potential for the Future." *Acta Theologica Suppl.* 20 (2014), 280-92.

Williamson, G. I. *The Heidelberg Catechism: A Study Guide.* 이길호 역.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5.

Wright, C. J. H. "The Israelite Household and the Decalogue: The Soci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Some Commandments." *Tyndale Bulletin* 30 (1979), 101-124.

김선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천주교회의 대응과 변화."「종교연구」81/2 (2021), 33-60.

김헌수.『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I-IV』. 서울: 성약, 2009.

김홍전.『십계명 강해』. 서울: 성약, 1996.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두 현대 이론 분석: 한나 아렌트와 진 엘슈테인 의 대표적 연구서에 나타난『신국론』해석을 중심으로."「갱신과 부흥」25 (2020), 63-142.

유해무·김헌수.『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성약, 2006.

유현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효과적인 적용연구." Th.M. 논문. 총신대학교, 2013.

이경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 나타난 믿음과 선행."「한국개혁신학」40 (2013), 1-18.

이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 그 윤리적 함의."「한국개혁신학」40 (2013), 280-309.

최갑종.『예수님이 주신 기도』. 서울: 이레서원, 2000.

최준혁. "마르틴 부쳐의 요리문답 연구." Ph.D. 논문. 안양대학교, 201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교회헌법』. https://cbck.or.kr/Documents/Canon. 2021년 9월 6일 접속.

한정애. "마르틴 루터의 공공신학 사상."「신학과 사상」6 (2016), 171-99.

[Abstract]

Public Missional Theology in the Heidelberg Catechism

Young Mog Song
(Kosin University, Professor, New Testament)

The Heidelberg Catechism (1563, hereafter HC) spread throughout the world by excellently unravelling the truth of the Bible in a question-and-answer format following the system of Reformed and biblical theology. But is HC still loved and used today? This question, which is difficult to answer positively, is intertwined with the modern use of HC as well as other confessions. So far, there has been no case of studying HC in terms of public theology and missional church, which are actively discussed today, or public-missional theology, which has integrated the two since around 2010. But recently one insists that since HC lacks the dynamism from the church to the world, the church does not explicitly have a missionary responsibility in HC.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missional implications of HC's Christology, ecclesiology, eschatology, and the commentary on the Ten Commandments, keeping in mind the question of whether HC lacks the emphasis on missions that the church should carry out in the public spheres. This research topic is reasonable in that the church is the people of the eschatos called by the Holy Spirit to unite with Christ for the missio Dei.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guide to properly use historical orthodox Reformed confessions such as HC by the contemporary church, which has the task of restoring publicness and common good. It is reasonable to try to

read historical confessions of faith, including HC, which summarizes the Bible, from a public missional perspective. The modern church should not just repeat the legacy of the Confession of Faith , but should make every effort not to neglect the attempt to interpret and apply it anew in light of the modern situation, using it as a companion for theology and faith.

Key Words: the Heidelberg Catechism, public missional theology, Christology, ecclesiology, eschatology, Reformed theology